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도행전, 출애굽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5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사도행전, 출애굽기

충현교회 5대 목표

1. 신령한 예배
2. 천국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5. 지역사회 봉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현의 가정들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따뜻하고 정겨운 가정의 달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맞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니 각 가정마다 근심의 굴이 깊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들리는 소식들에는 항상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힘겨운 형편에 깊이 깊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심한 마음으로 깊이 숙였던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가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해 뿌려진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의 피가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비해서 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의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계신 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한 영원한 승리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상심한 마음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과 가슴 벅찬 용기로 가득차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바로 한 걸음 밖에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임목사 김성관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충현의 만나

1998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출애굽기 서문

출애굽기(엑소더스)는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애굽으로 부터 나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멍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을 흥미진진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역사입니다(창 15:12-21).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로부터(BC 1875년경) 430년이 지난 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역사(BC 1445년경)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① 해방작전 : 애굽의 압제를 넘기까지(1-12:36), ② 인도하심 : 광야 길을 걸으며(12:37-18:27), ③ 율법 :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19-24), ④ 성막과 제사 :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며(25-40)'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고전 5:7), 반석이신 예수님(고전 10:1-4),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되신 예수님(요 6:48-51, 7:37-38), 제사의 주인이신 예수님(히 9:8-12)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다가오는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용의 흐름

1:1-12:36 애굽의 압제를 넘기까지	19-24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1:1-22 노예생활	19:1-20:26 십계명
2:1-4:31 준비된 하나님의 종 모세	21:1-23:33 기타 율법들
5:1-11:10 영적 전쟁	24:1-18 언약 체결
12:1-36 유월절	25-40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며
12:37-18:27 광야 길을 걸으며	25:1-31:18 성막과 제사장직에 대한 청사진
12:37-15:22 출애굽	32:1-34:35 언약 파기와 언약 갱신
15:22-18:27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35:1-40:38 성막 건축과 제사장직 제정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19:21)

주님을 영접한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칭한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쉬임없는 선교여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사도행전에는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행19:21).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은 실패자로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주님은 그를 로마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을 바울의 제4차 선교여행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잡혀간 지 300여년이 지나서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서방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을 태운 로마 행 배는, 비록 배에 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놓을 위대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의 로마 행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수종들기 위해서 동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배후에는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생애는 한 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을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27:25)

바울 일행은 항해 중 풍세가 심해져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항해하자고 제안하였지만 항해를 책임지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고 항해를 고집하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건잡을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배가 풍랑에 밀려가다가 스르디스(모래톱)에 걸릴까 걱정되어 연장을 던져서 배가 떠밀려가는 것을 막아보려했지만 풍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폭풍이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절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도달한 이들은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벌써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웃에게 주님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27:35)

죄 수의 몸으로 끌려가던 바울은 풍랑 이는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배 안에서 어느덧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배안의 총책임자 백부장은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행을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말을 바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행합니다.

열나흘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떠밀려 다니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게 합니다. 이튿날 배는 어느 섬 가까이 이르러 파선하고 맙니다. 군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싶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침내 이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바울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전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③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소서.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28:9)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토인들은 다행스럽게도 바울 일행을 호의적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특별하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추위로 인해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한 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놓자 뜨거움을 인하여 땅 속에 있던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토인들은 바울이 살인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판단은 그들의 관습에 기인한 듯합니다.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으나 공의가 살인한 그를 살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연히 독사의 독에 바울의 손이 쏘든지 혹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신에 빠져 있던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친절하게 영접하여 사흘이나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

▶ 기도 제목 / ① 영적인 암흑지대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② 충현교회가 천국일꾼을 온전히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8:23)

멜 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까이 도착할 무렵 이미 그곳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이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접을 받고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로마 선교를 위해 바울은 로마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서 감금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집에서 일종의 가택연금식으로 감금되어 있었으나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회개치 않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모습을 책망한 이사야의 말씀(사 6:9-10)을 인용하여 책망하며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 일생을 오직 복음전파를 위해서 살아온 바울은 그후 2년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자 자동적으로 풀려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네로의 박해로 인해 재투옥되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위한 생애를 계획할 믿음을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 (1:12)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 고난당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까? 먼저 고난은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본문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는 말은 학대를 받은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허락하십니다(고전 10:13).

또한 고난은 성도에게 신앙적 유익을 가져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창성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학대를 받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 버리곤 했습니다(수 24:14).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곤 했습니다. 고난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진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였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난은 성도에게 신앙적 결단을 가져옵니다. 학대를 받은 만큼 백성들간에 서로 단결했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으나 그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학대와 과중한 사역은 백성들을 서로 협동하게 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유익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2:10)

본 문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 세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세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행한 요게벳을 보겠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로 인해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점점 강포해지는 히브리인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바로는 히브리인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달 동안 그 아이를 몰래 키웠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한 목숨을 내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히 11:23).

다음에는 순종한 미리암을 보겠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아들을 나일 강변에 버려야 했던 요게벳은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고 한탄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딸 미리암을 시켜 아들이 어찌 되는지 그 상황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았고,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모세는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많았던 애굽공주를 보겠습니다. 애굽의 절대군주 바로는 악했으나 그의 딸 공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6절)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9 ... 바로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2:15)

모 세가 자기 동족을 확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11, 12절).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낮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15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화보다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신앙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교수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온실에서 편안히 성장한 교만한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유모, 즉 친모 요게벳의 손에서 자랐으며(7-9절) 그 덕분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궁궐에서의 편안한 삶 속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마침내 본문에서와 같이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히 11:24, 25)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왕상 18:21)고 물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결단의 때를 요구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3:10)

본 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여느때와 다름 없이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으로 나갔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발견하였음을 보여 줍니다(2, 3절). 그 놀라운 장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4, 6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에는 사전 통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갑작스러운 현현임에 틀림 없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안에서 미리 계획된 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연단되기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매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역의 완성의 때에 맞추어 십자가에 달리셨듯,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시간에 맞추어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이 이루어진 후 모세의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며(7-9절), 그 임재의 목적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음을 보여 줍니다(10-12절).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청지기로 충성케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3:14)

‘하 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유사 이래로 계속 되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14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계 1:4, 8) 초월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마침내는 썩어 없어집니다(벧전 1:24).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라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15절)이라고 대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변함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곧 살아 계셔서 언약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변치않는 구원자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케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③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하소서.

찬송 / 348장 본문 / 출 4:1-9

☞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4:4)

본 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는 모세를 다시 붙들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소명의 중요성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이적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이적과, 그의 손이 문둥병으로 희게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쓸모 없는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명을 피해 보려고 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다듬어 가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요나의 경우처럼 환경까지 변화시키셔서 사람의 주장과 아집을 꺾으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③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모세가 …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4:20)

본 문에서는 모세가 그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보내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발음이 서툴러서 말을 매우 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어눌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행 7:22).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서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출한 달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 위주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고전 4:20). 그리고 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고 미리 아론을 준비시키셨고, 아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오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훈련을 애굽 왕궁과 미디안 광야에서 시키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 모세와 같은 자라도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시 51:12)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③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30)

하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위해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을 때 모세는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부르실 때 일을 맡겨만 두시고 스스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셔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그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21절).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꿈에 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니느웨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이방 백성이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의 일꾼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또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삶이 집중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여 열매맺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③ 제35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5:3)

본 문에서는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장면(1-9절)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대하는 장면(10-18절),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께서 누구관대’라고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인식될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22절).

이처럼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심각한 고통과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십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③ 제35회 전국 목사 · 장로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6:7)

본 장은 모세의 호소(5:22, 23)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세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으며(1-13, 28-30),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14-27).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노역이 가중되자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시고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수백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14-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의 내용 가운데서 모세에게보다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제사장직의 합법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성에 따라서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가시며,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배우게 하소서.

-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세이었고 아론은 ...”(7:7)

모세는 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심한 거부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할 것은 단지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순종함으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잡니다. 모세의 대변인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그 앞에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객들 역시 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비록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기는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박해집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마술은 사탄의 힘을 통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의 힘은 오늘날 여기저기에 뻗쳐 있습니다. 그 힘은 사람들로 거짓 영을 좇게 합니다. 바로와 같이 진실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런 거짓 영에게 속기 쉽습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나 친척, 친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이 강박해진 마음에 내린 첫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과 또한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창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그분의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가정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8:2)

애굽에 내린 두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이 신성시하고 있는 개구리의 신(헤크트 여신)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이용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피의 재앙으로 인해 나일 강가에 살 수 없게 된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재앙이 떠나자 마음이 변하고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강박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쉽게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 애굽인들을 괴롭힙니다. 바로의 술객들은 이것을 흉내낼 수 없게 되자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재앙들은 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었으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들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술객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우연이라고 단정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대로만 믿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지혜와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 (8:23)

하 나님께서는 애굽의 파리 떼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 파리 떼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집에 몰려 들었고 애굽 땅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재앙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 없이 햇빛과 비, 건강과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들을 여러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그분의 표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보호받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바로는 물러가는 파리 떼를 보자마자 다시 백성들의 떠남을 막습니다. 모세는 전보다 더 용감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인내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평을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된 삶을 살기까지 키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기록했습니다(빌 1:6).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앙을 성숙시키신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모세와 같이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게 하셨으므로 ...”(9:12)

가 축들에게 내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의 우상을 조롱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서는 황소와 암소, 염소 모양을 한 각종 우상들이 즐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써 그분이 친히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재앙은 짐승과 사람에게 독종이 나는 것입니다. 전에 모세에게 완강히 대적하던 애굽의 술객들까지도 그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연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첫번째 기록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바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강박하였습니다. 우박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긴 경고의 말이 있는 뒤에 내린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자기 가축과 노예들을 들에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설교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죄를 모세에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다시 자기 죄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회개는 거짓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거짓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구원을 바라나 구원을 얻고 나면 다시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17 ...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2)

바로는 메뚜기 재앙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이것은 3, 4월 경이면 애굽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 애굽에서 있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바로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상 바로의 교만과 완고함으로 애굽이 망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교만과 완고함은 나라와 가족 그리고 개인을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이 완고하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완고함은 필요하지만 가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완고함은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완고함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부모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녀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두신 채 애굽에 거듭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표징을 목격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하여 '세라피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면치 못했던 것은 그들 신의 거짓됨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흑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잡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속에 교만함이 사라지도록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10:27)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모세를 통하여 충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어느 정도 완악한 자세가 완화되어서 양과 소를 남겨 두고 남자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27, 28).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욕심으로 가득찬 불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마 13:5).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내면에 단단한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내면의 진실한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을 늘 드리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주님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라.”(11:1)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 시간은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의 심령이 과연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붙잡아 두고자 하였던 바로가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땅에서 내보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압박하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애굽의 맹군주 바로처럼 끈질기게 사람들을 죄의 결박에 묶어 두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선포하셨습니다(눅 4:18-19).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놀라운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렇게 억압하던 죄짐이 풀어집니다.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 』(12:13)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흠없는 1년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가족 단위로 준비하여 그달 10일에 준비하였다가 14일에 잡아야 됴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양을 먹되 언제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비하는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을 고정시키는 양쪽의 기둥(문설주)과 이 기둥을 고정시켜 주는 나무(인방)에 발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며 나를 과거 어떤 죄악과 허물과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12:22)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엄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노아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입구에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곳을 제외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의 온 지역에 짐승까지라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도리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노아 때처럼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도적같이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눅 21:35). 그리고 오직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깨어 있기 어려운 시간에도 졸음을 참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죄악이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아의 심판 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신앙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면서 타락했는데(창 6:1-2)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사백 삼십년 마치는 그 날에 ... 애굽땅에서 나왔은즉 (12:41)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밤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하는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혹독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끈질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출 11:1).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보내다가 대민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향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창 15:13).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민족의 장래를 말씀하셨으며, 바로의 완악함이 극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대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었고 갇힌 자 되었으며 눌린 자 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눅 4:18-19).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때 죄가 관영하고 죄의 세력이 믿는 사람조차 붙잡고자 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13:9)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을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 권능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눈에 보이는 그 표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출 13:9)

그런데 마 23:5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술을 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됨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 기도제목 / 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③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들 앞에 행하라”(13:21)

이 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 쪽으로 우회하여 가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위로 가면 불레셋 군대가 있어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7절). 그들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행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십니다.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 주셔서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밤이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위를 막아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 28:20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것도 꿰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성을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급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4:14)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언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남을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낸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4,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추격해 올 것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1절). 그리고 그 추적하는 군대를 물리치는 권능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털어 놓습니다(12절).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13, 14절).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평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에 원망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3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14:17)

우리는 어떤 상황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 확신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선택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된 인간은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격으셨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여호와와 용사시니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시로다.”(15:3)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용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의 압제와 공격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서 나온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였습니다(시 23:1).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마 16:16).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때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과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②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15:22, 23)

만일 여러분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말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을 합니다(출 16:2, 17:3; 민 14:2, 16:11, 41).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정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마라의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원망 대신 감사와 그를 향한 신뢰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② 5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6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 서문

불순종의 결과로 페르시아의 포로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손길은 여전하였습니다. 비록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여 주는 바 하나님의 섭리는 부림절(9:26-28)의 기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은 에스더의 용기와 그의 현명한 사촌오빠인 모르드개의 모사를 통해 유다 민족 모두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이 축복된 사건이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 중 당대의 누군가가 BC 483-473년경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1:1). 이 기간은 스룹바벨로 주도된 1차 귀환과 에스라가 인도한 2차 귀환 사이 기간과 일치합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외에 에스라서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주제는 '잔치'입니다. 이야기는 아하수에로의 잔치로 시작하여 여러 형태의 잔치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의 잔치, 부림절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내용

제1부 위협받은 유다인들(1:1-4:17)

I. 왕비로 선발되는 에스더(1:1-2:20)

1. 쫓겨나는 와스디(1:1-22)
2. 왕비로 세워지는 에스더(2:1-20)

II. 하만의 계략이 시작됨(2:21-4:17)

1. 왕의 모살을 계획한 자들을 고발하는 모르드개(2:21-23)
2.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하만(3:1-4:17)

제2부 승리하는 유다인들(5:1-10:3)

I. 하만에 대한 모르드개의 승리(5:1-8:3)

1. 배경(5:1-6:3)
2. 높임받는 모르드개(6:4-14)
3.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달려 죽는 하만(7:1-10)
4.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된 모르드개(8:1-3)

II.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8:4-10:3)

1. 승리를 위한 준비(8:4-17)
2. 이스라엘의 승리(9:1-16)
3. 사건의 최종 결말(10:1-3)

제 1 과

에스더(1)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준비

찬 송 / 513장

읽을 말씀 / 예 1:1-2:23

공부할 말씀 / 예 2:1-23

함께 읽기

에스더서의 처음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사치스러운 잔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치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왕의 부와 권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도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인간 역사의 의미를 극대화시킴으로, 소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배경 설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사건은 왕비에 대한 왕의 허세 석인 요청과 왕비와 스디의 거절로 인해 잔치의 모든 흥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으로 치닫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하수에는 왕비를 폐위함으로 보복합니다. 인간의 역사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페르시아 왕궁의 스캔들, 쓸데없는 자존심, 남녀간의 신의와 상호존경심 등 말할 것들이 더러 있겠으나, 에스더서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에스더라는 한 인물의 등장을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2장은 에스더의 등장과 그녀가 왕비로 세워지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소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역사의 화려함이 단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배경 설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1-4절)
2. 모르드개가 페르시아까지 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6절)
* 참조 - 6절에 나오는 '여고냐 왕'은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데, 렘 22:24에서는 그의 이름이 '고니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3. 7, 10, 11, 15절 등을 통해서 볼 때,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개의 관심과 사랑은 어떠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4. 에스더에 대한 주위 사람들과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9, 15, 17절)
5. 모르드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궁의 호의를 살 기회를 얻었습니까?(21-23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에스더서의 배경은 세계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관장하기 시작한 페르시아의 왕궁입니다. 잘 짜여진 법률과 조직들(1:13-14),

그리고 무수한 신하들의 기계적인 움직임, 풍부한 음식과 물질적인 화려함(1:6-7), 세계제국다운 예절과 도의(1:8) 등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라도 주눅이 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수세적 위치 속에서 살았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장식하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손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최근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긴박하고 힘겨운 현실의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2. **모르드개**의 행적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되 하루하루를 막연하게 그럭저럭 떼우는 식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할수록,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그의 손길은 분주하고 용의주도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소중하게 양육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반대를 예상하여 선불리 덤벼들지 않았으며 (2:10) 일의 진행을 자세히 살폈습니다(2:11). 그리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2:21-23)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미명하에 막연하고도 무책임한 마음으로 적당히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 2 과

에스더(2)

신앙의 절개와 예상치 못한 결과

찬 송 / 431장

읽을 말씀 / 에 3:1-4:17

공부할 말씀 / 에 3:1-6

함께 읽기

절대권력자가 자신의 측근을 등용할 때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호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만의 경우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만을 아각사람이라고 칭함으로써(3:1) 그가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가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모르드개로서는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당당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하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모르드개와 그가 속한 유다민족 전부를 멸절시키고자 계획을 꾸몄습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 대다수가 나름대로의 미신에 의존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만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소위 '유대인 제삿날'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호의를 얻어 유대인 멸절을 공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하만의 계락을 들은 후, 모르드개는 에스더에

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념비적인 고백(4:16)을 통해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만의 출신은 어디이며,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1절)
2. 그가 어떻게 그 지위를 차지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2.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한다'는 법규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2절)
3.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도록 명했던 모르드개(2:20)는 이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4절)
4. 자신의 신앙 절개에 충실했던 모르드개에게 일차적으로 생긴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5-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명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만 보면 그것은 엄연히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결연히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모르드개의 이 모습은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단 6:10)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나라의 악법보다, 그 악법에 의한 처벌보다 '신앙의 절개'가 꺾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과 그것을 통한 승리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에서도 명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 중심의' 긴급한 문제가 신앙의 절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가 이미 삶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의 문제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2. 모르드개는 자신이 보인 신앙의 절개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4:1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태도가 그것을 반증해 줍니다. 자기 한 사람의 신앙절개가 자기 가족 전부를, 자기가 속한 회사 전부를, 또 자기 민족 전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대단히 절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했던 태도에 대하여 후회하고서 우리 시대의 '하만'을 찾아가 빌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보인 태도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곡법을 택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킨 신앙의 절개로 인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을 때(예를 들어 나의 타협없는 신앙으로 인해 인간관계나 직장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등),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편입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제 3 과

에스더(3)

일하시는 하나님

찬 송 / 43장

읽을 말씀 / 에 5:1-7:10

공부할 말씀 / 에 6:1-14

함께 읽기

모르드개의 도전을 받아들인 에스더는 지혜로운 용기로 왕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자세로, 정직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중심이 없었던 하만은 과대망상증이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5:11-12) 정신이 없는 치졸한 계락을 세웁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도 같은 부류로서 그 어리석음에 동참했습니다(5:14). 6장에 이르게 되면 에스더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개입을 통해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대목을 접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의 죽음을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모르드개를 높여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을 정점으로 하여서 하만과 그 동료들은 하늘 꼭대기에서 땅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번째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왕은 에스더를 통해 자초지종을 듣고 대단히 분개했으나, 자기가 직접 반지로 도장을 찍어 보낸 조서를 철회할

힘이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았습니다(7:7). 그러나 바로 그때, 하만은 당황한 나머지 왕에게 자기를 체포할 구실을 주었습니다(7:8).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위해 준비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를 초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운 바로 그날 밤, 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1-3절)
2. 하만의 과대망상증이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하만과 그 아내와 친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13절)
4. 13절에서는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속하신 움직임’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6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필연,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고자 한 그날, '마침'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책을 했어도 되는데, '마침' 역대 일기를 읽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모르드개의 치적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문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당신의 삶에서 경험한 '마침의 은총'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혹시 최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2인자가 그 막대한 권력과 입지, 그리고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속하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없는 인생의 결국을 잘 보여 줍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결말지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잠언 16:1-18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하나님없이 하고자 했던 일(혹 하나님께 여쭙어보지 않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만 여쭙어 보고 끝냈던 일)이 있으면 고백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처리해 갈 수 있겠는지를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에스더(4)

전쟁입니다

찬 송 / 389장
읽을 말씀 / 에 8:1-17
공부할 말씀 / 에 8:11-17

함께 읽기

하만과 그의 동료들이 구상했던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아직 아홉달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내의 온 백성들은 그 계획의 철회통보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이와 관련하여 왕에게 간청을 올렸고, 왕은 자신의 반지로 서명한 철회문서를 내려(8-9절) 매우 긴급하게(10절) 지방의 관원들에게까지 그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것과 그들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원수들에게서라도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11-14절). 이것은 한 전횡적인 통치자의 유치하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긍정하면서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어쨌든지 결국 유대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동정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행위를 선한 일로 돌려 놓으시는 것, 슬픔을 빛과 기쁨

으로 바꾸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의 대미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왕이 조서에 기록하게 한 유대인 보호법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말해 보십시오(11절).
3. 12절에 나오는 아달월 십이월 십삼일은 본래 어떤 날이었습니까?(3:13)
2. 15-16절을 4:1-3과 비교해서 읽어 보십시오.
* 이를 요한복음 16장 20절과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3. 유대인에게 임한 기쁨에 부가하여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17절 하반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에스더서의 기록연대는 다니엘서 기록연대보다 40-50년 정도 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기를 지나는 유다인들이 다니엘서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시대와 페르시아시대를 공히 지내온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사실(단 9:1-2)이 그 힌트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적군 사단의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단 10:10-14). 따라서 에스더서를 읽는 포로기 유다인들은 하만으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의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도 이러한 영적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라야 그 의미가 온전히 살아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엡 6:10-12). 과도한 영적 해석과 전쟁의식도 문제이겠으나, 영적 전투 의식의 부재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생활을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영적 전투의 승자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부수시고 멸망케 하시나,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자기 백성을 얻으시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삼으십니다(17절).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나아가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전과 보장된 현실을 쥐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제 5 과

에스더(5)

탐욕없는 보복

찬 송 / 212장

읽을 말씀 / 에 9:1-10:3

공부할 말씀 / 에 9:5-28

함께 읽기

9장을 읽는 독자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체가 된 '죽인다. 도륙한다. 멸한다'는 말이 9장에서만 최소한 15회 이상 등장합니다. 물론 현대적 정서를 가지고 에스더 시대의 분위기를 가감없이 투사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하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고, 계속적인 공격은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짐작을 해 보게 됩니다. 부림절은 시골에서는 아달월 14일에, 성읍에서는 15일에 지키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18-19, 21절). 어쨌든지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의 치명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구원의 손길로 놀랍게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림절 역시 그러한 정신을 기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켜졌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0, 15, 16절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에스더가 왕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13-14)
* 시체를 공개적으로 매어 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참조. 수 8:29, 렘 36:30).
3. 부림절을 지키는 유다인들이 기쁨의 표시로 추가한 '의식' 혹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습니까?(19, 22절)
4. 부림절이라는 말의 기원과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24-2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멸하려 했던 대적자들에 대하여 왕명에 따라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조치는 탐욕이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조서를 통해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을 합법화했으나(8:11), 유다인들은 대적자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의 정신을 잘 따른 것이었습니다.

출 21:24에서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법을 명한 바 있으나, 이것은 보복의 반복을 통한 확대 보복과 탐욕의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본때보이기'를 갈망하나, 그 중심에는 자칫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은총의 백성이 아닙니까? 최근 당한 억울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혹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2. 유다인의 부림절 기념행사에 잔치가 배설되는 것은 자연스럽겠으나, 선물교환과 구제가 개입된 것은 생각을 좀 필요로 합니다. 생각컨대, 그것은 기쁨의 공동체적 표현이 소외된 가난한 자의 방치와는 어울릴 수 없다는 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잔치는 참여자 모두의 기쁨과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잔치, 곧 예배와 교제, 구역모임과 가정의 화목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오래토록 방치해 놓은 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